



원장의 글

홍 세 권 / 방재시험연구원 원장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춘삼월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의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니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느낌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는 각종 자연 및 인위재난으로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1,23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세계적인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적어도 28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어 지난 1970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여 30여 만 명을 숨지게 한 홍수 이후 최악의 자연재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14명의 인명피해와 1조2,34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피해만도 총 3만2,736건 발생에 2,301명의 인명손실이 난 것으로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재산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간에도 설 틈 없이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당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재업무분야에서 20여 년 이상 화재안전과 손실경감을 위해 긍지를 갖고 일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미력함에 한 줄기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작년 우리 연구원에는 박사급 인력이 3명이나 보강되었을 뿐아니라 FTIR 연소가스분석기, 수·기밀성 내풍압 시험장치 등 여러 가지 최신 시험장비가 도입되어 올해에는 시험연구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재교육을 위한 교육관 및 실습실도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아무리 엄청난 힘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재난의 예방과 손실 경감을 위해 태산을 오르는 희망과 포부를 갖고 올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